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년 4월 3일(수) 09:40
담당자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44-550-4071, yongkim@kdi.re.kr)
배포일시	2019년 4월 1일(월)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KDI,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로 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

- 일 시: 4월 3일(수) 09:20~17:15
- 장 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B2F)
- 주 최: K D I
- 후 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KDI는 4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본 토론회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급속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7대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둠.

□ 최정표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내외환경의 불확실성과 주력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저생산성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확충되어 대외환경의 불확실성과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환경, 복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KDI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언들이 실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예산·규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진 축사에서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에만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제조업과 더불어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다섯 개 세션으로 나뉘며 각 세션은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참여형 토론으로 이뤄짐.
- (세션1. 문화예술·관광)에서는 이창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존에 실행되던 정부의 공급자 지원 정책과 소비자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확대와 공급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수요 확대 측면에서는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및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공급역량 확대 측면에서는 문화소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운영, 관리, 기획 등 공급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

□ (세션1. 문화예술·관광)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서울 78%), 쇼핑·식도락 중심의 빈약한 관광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가 위주의 유치 경쟁이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인과 내국인의 선호도에 맞춘 two-track 전략 추진과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위상 정립,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세션2. 평생학습·훈련)에서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의 현행 평생학습 체계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는 특정 직무 습득을 위한 전통적 직업훈련에만 투자가 편중되기 쉽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힘.

- 전 국민에게 교육과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와 다양한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현재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재원 조달 구조를 일반회계로 보완 후 평생학습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이 평생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

□ (세션3.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에서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돌봄요양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의 질적 관리나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현재 우리나라 돌봄요양서비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최근 노인돌봄 패러다임과 커뮤니티케어¹⁾ 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3단계로 구성된 다층적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제안
- (세션3.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정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 짓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규제 간 비일관성으로 인한 회색지대가 건강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 ‘어떠한 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세션4. 영유아 보육·교육)에서는 김인경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학대와 부실급식 의혹, 회계 비리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국공립 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며
 - ‘투명하고 열린 어린이집·유치원’을 지향하기 위해 회계 관리, 기관 평가, 교사 재교육 및 컨설팅, 기관의 질과 아동발달 조사, 부모 참여, 영유아 보육·교육 과정, 교사 배치 및 자격 기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등 어린이집·유치원 전반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함.
- (세션5. 환경)에서는 김현석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깨끗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가시적인 환경개선의 부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만족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1)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시스템

- 오염자부담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감시·관리 기능 강화, 효율적인 상하수도 관리 및 운영, 국토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관리 개선 등 정책 도입 및 개선방안을 제시

-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정표 KDI 원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외 정부, 학계, 연구기관, 협회 및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공론의 장을 펼침.

❖ **첨부 1.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2. 세부 일정**

❖ 첨부 1. 세션별 발표요약문

[세션 1. 문화예술 · 관광]

발표 1. 소비자 중심의 문화예술산업정책

이창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문화예술산업 소비는 낮은 편

- GDP 대비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은 4.1%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며 영화 등 특정 부문에의 편중, 취약한 국내 수요 기반 등이 문화예술산업 부진의 원인임.
- 기존에 실행되던 정부의 공급자 지원 정책과 소비자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음.

□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경험 축적과 공급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

- **(수요 부문)** 소비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소비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 소비와 후원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
 - 디지털 바우처 지급 등 구매력 지원과 소비행태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상품의 다양화를 유도
 - 세제혜택 부여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참여 독려
- **(공급 부문)**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소비 경험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라이브 공연, 디지털 콘텐츠, 대중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합공연시설 확보
 - 하드웨어 확충과 함께 운영, 관리, 기획 등 소프트웨어 역량 제고

[세션 1. 문화예술 · 관광]

발표 2. 관광산업의 도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양적 성장과 달리 질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내국인 관광객은 최근 5년 간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외국인 입국자 수도 연평균 10%씩 증가
 -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의 편중(서울 78%), 쇼핑·식도락 중심의 관광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가 위주의 유치 경쟁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Two-Track 전략과 정책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
 - 외국인과 내국인의 선호도에 맞춘 Two-Track 전략을 추진
 - 외국인 국내관광은 한류관광, DMZ 평화관광, 복합 리조트, 의료웰니스 관광, MICE 연계 관광 등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심의 전략적 상품 개발에 집중
 - 내국인 해외관광의 국내관광 전환을 위해 산악(레저)관광, 해양(레저)관광, 생태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 몰입형 지역관광의 고급화에 주력
 - 관광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회의로 격상, 청와대 내 관광진흥비서관 직제 마련 등 관광산업의 위상 정립과 정부 내 공감대 형성
 -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KPI)설정, PDCA²⁾ 방식의 관리체계 전면 도입
 - 역량있는 지역추진주체 형성을 위해 한국형 DMO³⁾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간 발전적 경쟁 유도
 - 국무총리 주재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 · 연계 도모

2) PDCA(Plan-Do-Check Act): 계획-성과 점검

3) DMO(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 지역관광추진기구

[세션 2. 평생학습 · 훈련]

발표 3.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급속한 기술진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는 변화를 대비하기에 부적합
 - OECD 주요 33개국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성별과 학력, 일자리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편
 - 33개국 중 학력별 격차 4위, 사업장 규모별 격차 2위, 고용형태별 격차 7위
 - 현행 평생학습 예산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편중되어, 취약층의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
 - 교육부의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 미만에 불과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은 약 80%(2017년)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되어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미취업자 등이 평생학습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움.
- 예산구조를 보완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전 국민이 평생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 개선
 -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평생학습 재원 조달 구조를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완해 평생학습 지원 대상을 확장할 필요
 - 전 국민에게 교육과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와 함께 교육, 훈련,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
 - 교육과 훈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부실 교육·훈련 기관의 퇴출 상시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 보장과 철저한 정부 지원금 관리

[세션 3.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발표 4.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돌봄요양서비스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노인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나 요양 서비스의 낮은 질과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부재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서비스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일부 부유한 노인층이 이용하는 고가의 서비스로 양극화 된 상태
 -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분절로 일상적인 생활지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발생
- 현행 노인돌봄서비스 개선과 커뮤니티케어의 강화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층적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제안
 - (1단계) 노인의 지역사회 내 생활 지원을 위해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 지원, 주거환경을 포함한 인프라 정비 등 통합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
 - (2단계) 구축된 지역사회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
 - (3단계)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과 수요 양면의 환경조성 지원

[세션 3.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

발표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김정욱 KDI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는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상태
 -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규제 간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그레이존⁴⁾은 산업 활성화의 제약 요인
 - 또한 혁신 의료·건강 기기 개발 후 인증절차가 까다로워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인허가 평가과정의 장기화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저해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 ‘어떤 행위를 건강관리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를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시급
 -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의 첫 단추로서 기존에 정부가 시행했던 시범 사업들을 검토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것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
 - 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고, 성과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시범 운용
 -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용 절감을 목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과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G2B2C⁵⁾ 모델의 지원을 고려

4) 그레이존(Grey Zone):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집단·지역)을 지칭하는 용어

5) G2B2C(Government to Business to Customer): 정부, 기업, 개인 간 거래

[세션 4. 영유아 보육·교육]

발표 6.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경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학대와 부실급식 의혹, 회계 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공립 기관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국·공립 기관이라 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영유아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
 - 모든 영유아가 기관 유형, 가정 여건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전반의 질 향상 필요
- ‘투명하고 열린 어린이집·유치원’을 지향하기 위해 ①회계 관리 ②기관 평가 ③교사 재교육 및 컨설팅 ④기관의 질과 아동발달 조사 ⑤부모 참여 ⑥영유아 보육·교육 과정 ⑦교사 배치 및 자격 기준 ⑧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⑨입소 관리 등 개선 방안을 제시
 -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입은 보육·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정부 지원을 연동하되 순수익의 액수와 용처는 반드시 회계시스템에 적시
 - 교사 당 아동 수를 낮추면서 보육·교육을 통합한 단계별 급수를 구성해 급여를 차등화하고, 급수의 상향 이동경로를 구축해 신규 교사 유입 및 역량 강화 유인을 부여
 - 교사 역량 평가를 서술적 보육·교육 상황 평가로 전환하고, 방문 컨설팅을 통해 개별 교사의 수요에 맞는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 부모가 기관의 질과 가격에 미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기관을 개방해 관련 정보에 대한 확보권 보장

[세션 5. 환경]

발표 7. 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

김현석 KDI 지식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환경개선의 부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
 - UN의 지속가능발전지수(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개 환경관련
목표 중 '기후변화 대응', '깨끗한 물과 위생', '생태계 보호' 등 5개
항목에서 최하위등급을 기록
 - 대기관리 관련 규제 하의 보고·감시·관리가 미흡하고, 시장유인
정책수단도 오염저감이라는 목적 달성에 한계를 보임.
 -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시설의 유지·보수 지연, 농어촌 폐기물 방치
-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효율적인 상하수도 관리 및 운영, 국토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관리 개선 등 정책 방안 필요
 - 오염자부담원칙의 엄격한 적용과 감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
부문 전문 인력을 육성·확충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오염물질관리제도를
정착시킬 필요
 - 상하수도 관리·운영의 업그레이드 위한 인력 및 재정투자를 확대
하고, 관로 및 시설 분야의 민간 위탁 및 민간투자사업 방식 확대 적용
 - 누적 방치된 폐기물 집중 수거 및 민간 수거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
하고, 수거·처리시설 및 시스템 확충 필요

❖ 첨부 2. 세부 일정

일 자	프로그램
09:20~09:40	<p>개회식</p> <p>개 회 사 최정표 KDI 원장</p> <p>축 사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p>
09:40~11:20	<p>세션 1. 문화예술·관광</p> <p>발 표 1. 소비자 중심의 문화예술산업정책 이창근 연세대학교 교수</p> <p>발 표 2. 관광산업의 도약,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p> <p>사 회 이시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 론 심상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11:20~11:35	휴 식
11:35~12:25	<p>세션 2. 평생학습·훈련</p> <p>발 표 3.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박윤수 KDI 연구위원</p> <p>사 회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 토 론 최영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변종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석전문위원</p>
12:25~13:30	오 찬
13:30~15:10	<p>세션 3. 돌봄요양 및 건강관리</p> <p>발 표 4.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돌봄요양서비스 권정현 KDI 연구위원</p> <p>발 표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김정욱 KDI 선임연구위원</p> <p>사 회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 론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수 서울대학교 교수 박재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정완교 서울대학교 교수</p>
15:10~15:25	휴 식

<p>15:25~16:15</p>	<p>세션 4. 영유아 보육·교육</p> <p>발표 6. 영유아 보육·교육 질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경 KDI 연구위원</p> <p>사회 토론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p>
<p>16:15~16:25</p>	<p>휴식</p>
<p>16:25~17:15</p>	<p>세션 5. 환경</p> <p>발표 7. 깨끗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 김현석 KDI 연구위원</p> <p>사회 토론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 임동순 동의대학교 교수</p>